



‘24년 연구개발(R&D) 정책방향 전국 설명회, 현장 연구자와 직접 소통한다

- 전국 각지에서 10차례 이상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전국의 대학, 기업,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자를 대상으로 ‘24년 R&D 정책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순서로 장영진 1차관이 12.6.(수) 고려대학교에서 (대학)고려대학교·한양대학교·경희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출연연)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업)삼양사·엔도 로보틱스 등 연구자들은 만난다. 산업부는 ▲R&D 혁신방안 ▲‘24년 투자 방향 ▲글로벌 R&D전략을 설명하고, 연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그간 산업부가 기업CTO(10.12), 출연연구원장(10.19), 대학 산학협력단장(11.1), 여성 공학인(11.10), 신진연구자(11.23)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아직 현장 연구자들에 대한 정책 전달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설명회에서 장영진 1차관은 “정부는 R&D 다운 R&D를 위해 투자방향을 조정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했으며, 이와 병행해 R&D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며, “연구자들이 인건비 걱정 없이 세계최고·세계최초를 지향하는 도전적·혁신적 R&D에 매진할 수 있도록 소규모 파편화된 지원보다는 대형성과를 낼 수 있는 R&D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정보를 기초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 R&D 지원을 받는 상위 30개 대학의 1억원 미만 과제 수 비중이 5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진 1차관은 “이번 구조개혁이 완성되면 역량 있고 도전적인 연구자들에게는 양적·질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이며, 정부는 현장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한 연구자는 “대통령이 말씀하신대로 기초·원천·차세대 기술에 정부 투자가 집중되고, 신진연구자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국가 R&D정책이 크게 변화하는 시기인 만큼 연구자들과의 더 많은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산업부는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강원, 충청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초까지 10여 차례 이상 릴레이 현장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 권 (044-203-4510)
		담당자	사무관 조영길 (044-203-4515)
			사무관 김상운 (044-203-4512)



1. 추진배경

- 정부 R&D 구조개혁과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 단위 릴레이 현장 설명회 개최

2. 설명회 개요

- 일시: '23.12.6.(수), 14:00 ~ 15:30
- 장소: 서울 고려대학교 공학관 448 (4층)
- 참석: 산업부 1차관(주재), 대학 교수 및 학생, 출연연·기업 연구원 등
 - * (대학)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출연연) 생산기술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업) 삼양사, 엔도로보틱스, 이퀄 등
- 내용: ① '24년 R&D 정책방향 발표
② R&D 혁신방향 논의

3. 주요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인사말	산업부 1차관
14:05~14:15	10'	'24년 R&D 정책방향 설명	산업부
14:15~14:25	70'	R&D 혁신 방향 논의	참석자
14:25~14:30	5'	마무리 발언	산업부 1차관